

해외 출장 결과 보고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제 10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개최와 중국의 6차산업화 정책 및 사례’ 관련 협의 및 조사

-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업무협의
- 중국의 6차산업화 사례를 조사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활용

2. 출장 지역 : 중국 농업사회과학원(북경), 산둥성 웨이팡시 관련 기업 및 농장 등

3. 방문 기관 및 담당자 :

- 중국 농업사회과학원: 마휘 부소장, 리우징 박사(FANEA 심포지엄 중국 측 발표 책임자), 우징쉬어 박사 등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출장소장 전형진 박사, 장양(사무소 직원)
- 웨이팡시 쥐이융핑 처장, 수광시 료썩텐 농업국 국장 등

4. 출장 기간 : 2014년 4월 28(월)~5월 1일(목), 3박 4일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농업발전연구부	연구 위원	김용렬
	전문연구원	허주녕

6. 출장 세부 일정 (3박 4일)

일 정	방 문 기 관	업무 내용
4.28(월)	출국(인천-북경) 농업사회과학원	· 한중일 6차산업 보고서 및 관련 정책 업무협의
4.29(화)	산동성 유방시 농업관련 기관 및 농민	· 산동성 유방시의 농업 현황 및 6차산업화 관련 정책 조사 · 참여 농민 면담
4.30(수)	산동성 유방시 농기업	· 유방시 내 6차산업화 농기업 견학 및 조사
5.1(목)	귀국(북경-인천)	

II. 세부 출장 결과

1. 한·중·일 FANEA 심포지엄 계획(안) 협의

○ 심포지엄 목차 구성

- 한중일 농업의 6차산업화 관련 정책, 사례 등을 종합화하여 향후 발전 방안에 필요한 과제 제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목차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 목차에서 각 국별 농업의 6차산업화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자국의 사례를 제시하여 개괄적인 6차산업화의 실태와 제도를 언급한다.
- 그리고 한중일 연구자간 교류를 통한 각 국별 사례에 대한 소감과 코멘트를 최종 심포지엄에 활용한다.

○ 한중일 FANEA 보고서 분량 및 일정 확정

- 국별 연구내용이 각장으로 구성됨. 각국별 분량은 100페이지 내외
- 보고서 작성 일정: 5월16일(자국어 마감), 27일(영어 초본), 6월 5일(영어 완본, 발표 자료도 이날 마감).
- 국별 사례에 코멘트는 방문한 지역에 한하여 코멘트 한다(정책적 시사점과 발전을 위한 조언 중심으로).

- 사례에 대한 코멘트는 1-2페이지로 하며, 이 내용을 각국의 사례분석결과 마지막에 삽입하여 작성한다.

○ 한중일 FANEA 심포지엄 진행 관련 발표자료 및 분량 확정

- 발표자 1인, 토론자 1인을 기본
- 발표시간은 25-30분(PPT 중심으로 요약 자료 발표)
- 토론시간은 KREI에서 제시
- 보고서 일정: 5월16일(자국어 마감), 27일(영어 초본), 6월 5일(영어 완본)

2. 중국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 개요

□ 6차산업화 의미

- 중국은 “산업“이라는 차원에서 6차산업의 의미를 규정한다. 6차산업은 농업을 포함한 사회경제가 일정 단계로 발전한 경우에 발생하는 농업경영방식으로서 시장을 지향하고 경제수익을 중심으로 하고 주도산업을 중점으로 하며, 가공 기업을 용두(龙头)로 하고 광범한 농민을 기초로 과학기술서비스를 수단으로 각종 생산요소를 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 특히, 농업생산과 가공 등을 위해 지역화 배치, 전문화 생산, 규모화 건설, 계열화 가공, 사회화 서비스, 기업화 관리를 실행하여 재배·양식·가공, 생산·공급·판매, 무역·공업·무역, 경제·과학·교육이 통합한 경영체계의 현대화 생산경영방식을 가리킨다.
- 중국의 6차산업화는 국가 주도형의 산업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 한국과 일본의 6차산업화와 직접적인 매칭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농업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중국의 ‘농업산업화’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의미한다.

□ 농업산업화의 발생과 발전과정

1) 농업산업화 발생 배경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으로 농업생산 현대화와 주민생활수준 제고 및 생활패턴의 가속화에 따라 식물소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 중국 농업산업화는 농촌개혁발전의 산물로서 계획경제가 사회주의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산물이고 농촌가정도급경영제도 이후 또 하나의 농업경영체제의 중대한 혁신이다.
- 당11기 3중 전회 이후 농업과 농촌경제가 두 차례 중대한 역사적 변혁을 경험하였다. 첫 번째는 가정연합생산도급책임제로서 기본특징인 농촌경영체계를 위해 농민가정경영의 주체지위를 확립하였고 기존의 “통일·분배”의 이중경영체제를 결합하여 통일구매를 배제하였으며 대부분 농산물을 개방하여 농촌의 사회경제상황을 변화시켰다. 두 번째 변혁은 당14기 대표대회를 표징으로 하는 농촌경제가 전면 사회주의경제 궤도에 진입한 것이다. 시장경제조건하, 농업내부의 심층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는 천가만호 소규모생산과 천변만화 대시장 간의 모순, 가정경영과 규모경영 간의 모순,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과 농업의 비교수익이 낮은 모순, 농업전업화생산과 사회화서비스 간의 모순 및 농업노동력 잉여와 취업기회가 낮은 모순 등으로 나타났다.
- 상기 모순을 해결하려면 농업산업화 조직형식, 경영방식과 농업경제관리체제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고 가정경영과 시장 간의 연결 분야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야만 하였다. 농업산업화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경로였다.
- 90년대 중반기 이후 농산물공급은 장기적 부족에서 점차 양적 기본평형, 구조적 여유와 부족이 공존하는 국면으로 나타났고 일부 제품에서는 자급여유, 농산물 판매난, 농민소득 배회가 나타났다. 또 천가만호의 소규모생산과 국내외 대시장간 모순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구매난·판매난, 생산판매 분리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가공·판매의 통합화, 무역·공업·농업의 원스톱 등 경영연결형식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2) 농업산업화의 발전 과정

- 농업산업화경영발전은 중국 개혁과 같이 농업구조전략조정의 중요한 건인 역할이고 농업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유력한 조치이며 가정도급경영 기초 위에 농업현대화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경로이다.
- 농업산업화의 발전은 단계적이고 장기적 특징을 갖는다. 중국의 농업산업화경영은 20여 년의 발전을 거치면서 시작모색, 가속발전, 혁신제고 등 3개 단계로 구분된다. 농업산업화경영발전은 농촌경영체제를 혁신하고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을 추진하며 전반 경제사회의 진보를 촉진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가. 모색 단계

- 80년대 중반기에서 90년대 초반, 중국 농업산업화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농업에서의 농가별 경영과 시장 간 연결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동부지역과 대도시의 교외지역은 “농·공·상 통합화”, “생산·가공·판매 원스톱” 경영방식을 취하여 농업생산경영의 효율을 제고하였고 수익을 증가하였으며 분야를 개척하였고 점차 농업산업화 방향을 모색해냈다.
- 이 단계에 중국 농촌지역은 가정연합생산도급책임제를 진행하였고 농촌상품경제, 농업다품종경영과 2, 3차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여 일부 전업농가, 중점농가, 식량재배대농가, 재배양식 숙련자가 나타났으며 향진의 공업이 흥행하였고 상품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식량유통을 포함한 농산물유통체제를 개혁하였고 개인상인을 주체로 하는 집무시장, 전업도매시장이 나타났다.
- 농산물공급량이 증가하였고 구매판매체제와 제품가격을 개방하여 농산물 구매난·판매난과 많으면 내리고 적으면 올리는 국면이 교차 출현하여 농가이익에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익공동향수(利益共享), 위험공동부담(风险共担)”을 모색하는 농-상, 농-공, 농-무 합작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농산물유통체제와 가격체제의 개혁을 강화함에 따라 농산물가격은 전면 상승하였고 동시에 일련의 통화팽창이 나타나 농산물가공 산업의 발전을 자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급과동을 강화하였다.

- 일부 기업은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해 농촌지역에 생산기지건설투자를 진행하였고 농민과 생산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농가“, “용두기업+기자+농가“를 대표로 하는 농업산업화 경영모델을 형성하였다.
- 시작모색단계 농업산업화의 지역, 산업, 규모 등 분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우선 농산물상품화, 전업시장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부연해 지역과 대도시 교외지역에서 나타났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금, 채소 등 산업이 우위가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가공부가가치 수준이 낮고 산업화경영시스템이 주로 경영주체별 자발연합으로서 기업과 농가의 연합정도가 약하고 이익관계가 불안정하고 역할과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나. 가속 발전단계

- 90년대 중후반기에서 21세기 초반, 농업산업화는 활발하게 발전하는 추세로서 위에서 아래로, 중점에서 전면으로 추진하는 가속발전단계에 진입하였다. 1995년 12월 11일 《인민일보》는 “농업산업화를 논함“ 사회논평을 통해 농업산업화가 각계의 인정과 중시를 받게 되었고 중앙 관련 부문이 시범점을 적극 진행하였고 모색·추진할 것을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 각 지역은 실제로 부터 출발하고 자원우위에 의존하여 주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정책을 제정하여 농업산업화가 요원의 불길로 발전하여 용두기업은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다.
- 이 단계에서 중국 농업발전형세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농산물공급은 장기간 부족에서 양적으로 기본 균형, 구조적으로 여유와 부족이 공존하는 국면이 나타났고 일부 제품은 자급여유가 나타났으며 천가만호 소규모생산과 대시장간의 모순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또한 농산물판매난, 농업비교수익이 낮은 문제가 농민소득증대를 제약하는 주요 문제로 되었다.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일부 민영가공 용두기업들이 성장하였고 농민전업합작사, 농민전업협회, 농촌경제인 등 민간중개조직이 발전하였다.
- 농업산업화경영 경로를 통해 농산물판매난을 해결하고 농민의 비교수익을 제

고하고 농민소득증대를 촉진하는 것은 각급 정부와 전반 사회가 공인하는 사안으로 인식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농업산업화경영 추진을 일상 업무로 중요시하였다.

- 1996년 “농업산업화추진“은 《중공중앙, 국무원의 “9.5 계획“ 기간과 금년 농촌사업의 주요 임무와 정책조치(中共中央国务院关于“九五”时期和今年农村工作的主要任务和政策措施)》(중발(1996)2호) 문건에서 이미 나타났다.
- 《중공중앙, 국무원의 2000년 농업과 농촌사업을 잘할 데 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做好2000年农业和农村工作的意见)》(중발(2000)3호)에서 제기한 국가중점용두기업을 지원하고 농업산업화경영 정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00년 농업부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등 8개 부처와 공동으로 《농업산업화경영 중점용두기업을 지원할 데 대한 의견(关于扶持农业产业化经营重点龙头企业的意见)》을 연구 및 제기하였다. 또 당해 연도 8개 부처의 연합회의를 통해 151개 농업산업화 국가중점용두기업을 선정하였다. 지역별, 부처별로 중앙정부의 정신과 지지정책을 지도하여 농업산업화경영 추진사업을 적극 진행하여 농업산업화는 빠르고 건강한 발전을 이루었고 사회영향도 확대되었다.
- 농업부 농업산업화 관공실에서 1997년 전국 1.18만 개 이익연결 관계가 존재하는 농업산업화경영조직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경영조직들이 연결한 농가수가 1995만 호에 달하였다. 2000년 말 기준, 전국 각종 농업산업화 조직수가 6.6만 개에 달하여 5,900만 농가를 유인하였다.
- 이 시기의 농업산업화경영, 조직수는 증가규모가 상당히 크고 동부지역의 발전은 중서부지역 대비 더 빠르게 나타났다. 조직 캐리어 형식이 다양하고 계약관계가 주류였다. 산업분야별로 모두 크게 발전하였는데 재배업유형이 가장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저수준으로 확장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예를 들면 조직은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대부분 실력이 약하고 규모가 작고 농산물 가공수준이 낮고 용두기업의 경쟁력이 약하며 지역 간 불균형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다. 혁신 제고단계

- 21세기에 진입한 후 농업국제화와 농업산업화 지지정책의 영향이 점차 효과

를 나타냈다. 이런 환경조건 하에서 중국 농업종합생산력은 지속 증강하고 식품가공산업의 발전수준이 제고하여 농업산업화경영은 혁신·제고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 특히 당16대 이래 농업산업화와 농업농촌경제가 “황금기“ 발전에 진입하였다. 당중앙, 국무원은 농업산업화경영을 고도로 중시하고 농업산업화를 농업과 농촌경제사업의 전반적, 방향적 대사로 중시하였고 “농업산업화 지원은 농업지원, 용두기업지원, 농민에 대한 지원“임을 강조하여 일련의 농업산업화발전을 지지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하였다.
- 재정, 금융, 세금징수,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력하게 추진되어 용두기업이 크고 강해지고 농업산업화가 쾌속 발전하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 농업부는 과학발전관을 집행하고 현대농업과 농가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농업발전방식의 전환을 주요노선으로 삼았다. 또 2002년부터 매년 3,000만 위안 재정자금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용두기업에 지원하였으며 각급 부처별로 정책조치를 정비하고 뚜렷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농업산업화의 빠르고 건전한 발전 촉진에 힘썼다.
- “10.5계획“과 “11.5계획“ 두 계획기간의 발전을 통해 중국의 농업산업화조직은 크게 발전하였고 용두기업의 실력도 증강하였다. 표준화, 규범화 원료생산기지 건설을 강화하였고 과학기술혁신 능력이 제고하였다. 또 농민취업을 인도하여 소득증대를 실행하였으며 농업산업화 영향력을 제고하였다.
- 2010년 연말 기준, 전국 농업산업화 조직수가 25.49만 개에 달하여 1.07억 농가를 인도하였고 산업화경영에 종사한 농가의 소득증대 2,193위안을 실현하여 2005년 대비 각각 87.8%, 23%와 64.1% 증가하였다. 현재 중국 농업산업화경영은 전반적으로 혁신제고단계에 진입하였다.
- 발전모델은 양적확장에서 질적 제고로 전환하였고 단일 용두기업의 인도에서 용두기업 클러스터의 인도로 전환하였다. 이익연결메커니즘은 분산형에서 밀접형으로 전환하였고 조직모델은 용두기업 연합기지의 농가인도형에서 “용두기업+합작사+농가“로 전환하였다. 경영모델은 가공유통을 중시하던 데서 사업체의 전후방 단계로 확장하였고 정부직능은 단순지지에서 서비스규범화로 전

환하였으며 단일 용두기업주체를 중시하던 데서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건립하고 기업클러스터 발전을 인도하는 데로 발전하였다.

- 2012년 말 기준, 산업화경영조직수가 30만 개이고 용두기업의 순이익 4,667억 위안이며 인도농가수가 1.8억 호에 달하고 산업화경영에 종사한 농가가 호당 연간 소득증대 2,800위안을 실현하였다.
- 농업산업화경영조직 특히 용두기업은 중국 농산물과 식품 생산, 유통의 핵심이 되었고 농가취업, 농가소득증대의 주체로 되었다. 또 농업과학기술과 현대 물질장비를 보급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고 신형농민을 육성하는 사회학교로 되어 공업화, 도시화와 농업현대화의 조화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 농업산업화 발전의 추진 방법

- 중국의 농업산업화 발전은 광범한 농민, 농업기업과 기층간부가 농촌개혁과 사회주의시장경제발전에 적응하는 과정의 실천 모색으로서 발전은 각급 정부의 효과적인 추진과 정책적인 지지를 받았다.
 - 당중앙, 국무원은 농업산업화를 고도로 중시하고 당 15대, 16대, 17대와 18대 보고, 국민경제 “9.5 계획“, “10.5 계획“계획과 “11.5 계획“, “십이오“ 발전계획 및 최근 중앙정부의 농업관련 문건 모두 농업산업화 발전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일련의 강력한 지지정책과 조치를 제정하였다.
 - 중앙문건과 정신의 지도 하에 성(시, 구) 정부도 상응 사업추진구조를 건립하고 농업산업화발전을 지지 및 추진하는 업무를 중요한 지위에 두었다. 주요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조직영도를 강화하고 농업산업화사업 추진을 지지
- 당중앙, 국무원은 농업산업화를 고도로 중시하였고 지역별, 부처별로 농업산업화를 적극 지지 및 추진하여 농업산업화가 형성에서 발전하기까지 강력한 활력을 띠며 쾌속 발전 추세를 나타냈다.
 - 국무원은 8개 부처로 구성된 전국농업산업화 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관리 사

업구조를 형성하였다. 2000년 농업부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등 8개 부처와 공동으로 《농업산업화경영 중점용두기업을 지지할 데 대한 의견(关于扶持农业产业化经营重点龙头企业的意见)》을 연구 및 제기하였다.

- 2006년 8개 부처는 공동으로 《농업산업화경영 발전을 가속화할 데 대한 지도의견(关于加快发展农业产业化经营的指导意见)》을 하달하였고 동시에 재정, 세금징수, 금융, 국제무역, 상장 등 우대조치를 제정하여 농업산업화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2) 특별기금을 설립하여 농업산업화의 재정투입을 확대

- 2002년 중앙재정은 농업산업화 국가중점용두기업을 지지하는 농업산업화 특별기금을 설립하였고 동시에 농업종합개발자금의 중점을 농업산업화으로 투입하도록 하였다.
- “10.5 계획” 기간 농업산업화지원 중앙재정 자금은 119.5억 위안에 달하였다. 성, 자치구, 직할시도 농업산업화 전문재정자금을 설립하였고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하였다. “11.5 계획” 기간 전국 각급 농업산업화발전 지지 재정자금은 총 697억 위안에 달하였고 증가추세를 유지하였다. 2010년 한 해의 지방 각급 농업산업화 재정지원자금은 125억 위안에 달하였다.

3) 시장주체를 육성하고 농업산업화 용두기업을 크고 강하게 발전

- 농업산업화경영에서 용두기업은 관건이고 중개조직은 교량이고 농가는 기초이다. 지역별로 용두기업을 크게 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농업산업화를 발전시키는 관건 분야로 중요시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용두기업의 발전을 지지 및 추진하였다.
- 첫째, 용두기업의 병합 및 재건, 타구역 경영을 적극 촉진하였고 업계 내 선두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각종 중개조직과 기지농가를 인도하도록 하여 주체간 유기결합을 형성하고 양호한 상호 발전의 국면을 형성하였다. 둘째, 세금징수, 투자, R&D와 무역 등 분야에서 우대정책을 실시하였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감면정책을 향수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범위를 발표하였다. 조건이 부합되는 중점용두기업은 주식발행과 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신제품, 신기술, 신가공기술을 개발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용으

로 분류하여 소득세전에 삭감하도록 하였다.

4) 금융지지를 확대하고 농업산업화 용두기업의 융자난을 완화

- 농업은행, 농업발전은행 등은 농업산업화경영을 지지하는 중점을 농업지원신용대출 업무로 지정하고 자금배정을 진행할 때 이 분야에 비중을 두었다.
- 상무부는 농업부와 공동으로 중국수출입은행에 수출형기업을 추천하여 중점 지지하도록 하였다. 중국인민은행은 농업금융제품과 서비스방식을 창조하고 용두기업의 융자 경로를 확장하였다. 증권감독회는 용두기업의 상장융자를 우선 진행하였다.
- 대부분 농업산업화 용두기업의 융자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의 연결 사업을 확대하였다. “11.5 계획” 기간 호북성, 절강성, 중경시 등 10여 개 성(직할시)은 대출담보회사를 건립하였다.

5) 농민전업합작조직을 발전시키고 농민조직화수준을 제고

- 지방정부는 농민합작사와 농산물업계협회를 주체의 농민전업합작조직 발전을 적극 인도 및 지지하였다. 농민전업합작조직은 농가를 대표하여 용두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합작을 진행하여 소농가가 시장에 진입하는 구조를 혁신하였고 농민조직화수준을 대폭 제고하였다.

□ 중국의 농산업화 발전 모델

1) 농민전업합작조직 주도형

- 농민전업조직은 전업합작사와 회원 간에 밀접한 이익구조에 따른 운영방식은 현대기업경영과 유사하다. 합작사는 주로 생산재, 기술, 기초가공, 판매 등 서비스를 책임지고 회원은 사전에 확정된 생산규범과 표준에 따라 제품을 제공한다.
- 농산물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판매경로를 확장하는 데 유리하여 협력쌍방의 이익은 모두 효과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산업발전 기초가 양호하고 뚜렷한 규모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농가 혹은 경제인이 인도하는 재배지역에 적합하다. 전형적인 사례로 융순(永顺)현 창관(长官)과일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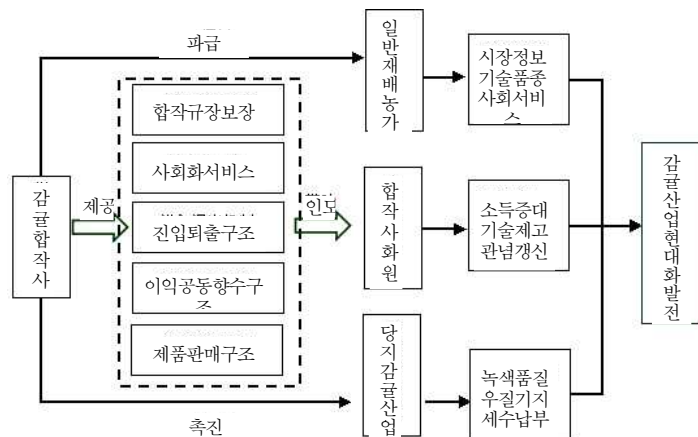
감귤전업합작사가 있는데 해당 합작사의 운영모델은 <도표 2-1>에서 보여준다.

2) 사례분석

- 창관진은 상서(湘西)주 용순(永顺)현 동남부, 서수(西水)강변에 위치해 있고 산하에 5개 행정촌, 2개 주민위원회가 있으며 전체 규모가 104.8km²이다. 대부분 해발 450m 이하이고 연간 강수량이 1400~1600mm이고 연평균 기온이 16.4℃로서 감귤성장에 적합하다.
- 창관감귤전업합작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감귤산업의 규모화발전을 인도하였다.
 - 첫째, 회원 및 주변 과일농가에 사회화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당지 감귤산업의 규모화발전을 위해 생산재공급, 신기술신품종도입, 기술훈련, 나무묘목배육관리, 병충해방제, 포장저장, 가공운송, 시장판매, 브랜드경영판매 등 사회화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둘째, 감귤품질건설을 중시하고 품질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창관진 감귤단지에는 대부분 80년대에 건립하여 품종이 노화되고 관리가 낙후하며 생산량이 낮고 수익이 낮은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합작사는 감귤품종개량을 중시하여 시범, 강의, 기술지도 등 방식을 통해 회원과 주변 과일농가가 감귤품종을 적극 갱신하도록 인도하였다.
 - 셋째, 합작사의 이익분배구조 정비를 중시하여 제도로써 이익과 비용의 구성을 확정하였다.
 - 넷째, 영활한 제품판매구조를 진행하여 브랜드경영판매사업을 중시하였다. 회원은 별도로 대외판매를 진행할 수 있고 품질요구에 도달한 과일을 합작사에 납품하여 합작사가 통일 판매하도록 할 수 도 있다.
- 2013년 “성급시범사(省级示范社)”로 선정되었다. 현재 회원은 창관진 4개 촌진으로 확장하였고 입회 농가가 총 418호에 달한다. 또 6,000여 명 재배인원을 인도하였고 감귤재배규모가 2.5만 무에 달하며 우질감귤수출기지 1,000무를 건립하였고 연간 감귤 생산량이 2.5만 톤, 연간 매출액 5,000만 위안에 달한다. 회원 과일농가의 일인당 연간 소득증대 8,300위안을 실현하였다.
- 창관산 감귤은 90% 이상이 합작사를 통해 전국 각 지역에 판매되고 있고 판

매가격은 주변 지역 대비 높다. 합작사의 인도 하에 전체 진은 녹색, 과학기술, 생태발전의 방향을 확립하였고 지류(集六)촌 통유핑(桐油坪)에 천 무에 달하는 국가급감귤수출기지를 건립하였고 무공해식품인정을 통과하였다. 감귤산업은 당지 경제발전의 주도산업으로 되었다.

그림 1. 창관진 “농민전업합작조직인도형” 운영모델 구조도



2) 정부 지원형

- 감귤생산경영의 정부지지형은 주요 단계, 예를 들면 브랜드건설, 기지건설, 기술승급, 표준제정, 시장개척 등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지와 인도 역할을 발휘한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자체로 “무대(搭台)”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직접 “공연(唱戏)”하기도 하는데 최종목적은 당지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 형식은 감귤산업이 당지 농업 특히 국민경제의 기둥산업으로 형성되었고 “강한 정부(强政府), 약한 시장(若市场)”의 전통지역에 적합하다.

3) 단지 인도형

- 단지 인도형은 엄격한 생산경영표준, 기술집성, 과학관리육성, 온전한 기초시설 구축, 시장경영판매, 브랜드개척 및 제품품질안전관리 등 조치를 통해 감귤표준화 시범단지를 적극 혁신하고 단지를 확장, 시범과 인도역할을 통해 주변 감귤생산경영농가가 신품종을 선정하고 신기술을 도입하고 신설비를 사용하며 신관념을 형성하도록 인도하여 전체 구역 감귤표준화생산수준과 산업경쟁력을 전면 제고한다.

- 이러한 모델은 주로 “3화(三化)”와 “3효율(三效应)”을 통해 감귤산업의 규모화 발전을 인도한다. “3화”라 함은 생산표준화, 생산요소집약화와 관리현대화이다. “3효율”은 신기술, 신품종과 신관념 추진을 통해 주변감귤산구에 시범역할을 하는 것이다. 단지의 기초시설건설, 시장정보 수집발포와 경영판매 네트워크구축은 주변 감귤산지에 공동향수 역할을 발생하게 된다.
- 선진 생산경영모델, 온전한 산업체와 가시적인 경제수익 등은 주변감귤산지에 인도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형식은 감귤생산경영산업기초가 든든하고 이미 성숙한 생산기술표준을 형성하였으며, 규모화 단지 규모가 광범하고 교통과 구역우위를 갖고 있고 정부가 생산경영기술의 승급과 교체를 중시하는 지역에 적합하다.

4) 용두기업 인도형

- 용두기업 인도형은 감귤생산경영과정 중 생산, 가공, 저장운송 혹은 판매기업을 “용두”로 생산·가공·판매 통합화, 무역·공업·농업이 상호 결합한 경영국면을 추진하는 형식이다.
- 용두기업은 기지와 연결, 기지가 농가를 연결하는 전업화, 상품화, 규범화된 생산경영 국면이다. 또 용두기업은 외부로는 시장과 연결하고 내부로는 농가, 농민전업합작사, 생산기지 등 주체와 연결하여 정비된 감귤산업체를 건립하여 위험공동부담, 이익공동향수를 실현하는 전략연맹을 건립하여 산업체의 각자 이익을 최대한 제고하도록 한다.
- 이러한 형식은 강력한 영향력과 일정 규모를 갖춘 감귤산업화 용두기업을 존재하게 하고 기업과 생산경영주체가 안정,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도록 한다. 이는 감귤산업체가 상당 수준 정비되고 산업화발전 규모화가 뚜렷하고 산업화구조가 성숙한 지역에 적합하다.

5) 대농가 인도형

- 대농가 인도형은 감귤생산경영대농가, 능력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농가는 선진기술, 광범한 시야, 현대이념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혁신하고 정부의 토지이전, 금융대출, 기술훈련, 기초시설건설, 생산재공급, 농기계구입보조 등

분야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 감귤생산경영사업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기술시범, 관념인도, 사회화서비스, 시장판매 등 방식을 통해 주변 농가의 발전과 소득증대를 이끈다.

- 이러한 형식은 두 가지 구체적인 실현모델이 존재한다. 하나는 생산단계에서 대농가가 주변 농가의 토지를 임대 혹은 구매하여 감귤 규모화 집중생산을 진행하여 우질생산기지 및 우질감귤생산시범단지를 건설하는 데 양호한 기초를 마련한다. 동시에 신기술, 신품종, 신이념, 신설비를 통해 주변 과일농가에 적극적인 시범과 인도역할을 하는 것이다.
- 다른 하나는 경영단계에서 대농가가 우선 제품의 품질에 대해 표준과 요구를 제기하고 주변 감귤을 대규모 집중 저장, 운송, 판매하여 감귤경영의 규모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생산경영대농가 인도형을 실현하려면 단단한 기술력을 갖추고 시장의식이 강하며 사고가 영활하고 과감히 개척할 수 있는 농촌경제 능력자 혹은 감귤생산경영 전업농가가 많은 지역에 적합하다. 이러한 형식은 현재 무릉(武陵)산간지역에서 감귤규모화생산경영을 진행하는 주요 형식으로서 지역별로 성숙한 사례가 많다.

3. 중국 용두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 특별재정투입 확대

- 농업부 농업산업화 특별기금의 인도와 시범하에 성(구, 시) 및 대부분 시, 현 지역별로 농업산업화 특별기금을 설립하여 용두기업의 원료생산기지건설과 기술개조승급을 집중 지원하였고 동시에 자금규모를 지속 확대하였다.

□ 금융지원 강화, 용두기업 용자 플랫폼 구축

- 용두기업은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공급·판매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민취업과 소득증대를 인도한다. 하지만 용두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 규모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고유의 위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의 약점과 고위험성 영향을 받아 용자난이 성장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성(구, 시)별 지방정부는 용두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혁신금융지원 방식을 모색하여 뚜렷한 성과를 취득하였다.

□ 생산과 판매의 연계 추진, 브랜드 용두기업의 지원 및 장려

- 최근 몇 년이래, 성(구, 시)별 지방정부는 용두기업의 브랜드 창조를 중시해왔고 정책을 출범하여 국가와 성급 유명브랜드를 획득한 용두기업을 장려하였다.
- 이에 유명브랜드 제품이 증가하고 용두기업의 전반 시장경쟁력을 향상하였고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의 효과적인 연결을 촉진하였다. 강소성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농업산업화 용두기업 우질농산물전시판촉회를 개최하여 용두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산물의 경영판매경로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용두기업이 국내외 농산물 전시판촉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전시회 참가비용을 보조하고 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하였다.

□ 산업화시범단지 건설, 용두기업의 클러스터 가속화

- 성(구, 시)별 지방정부는 상대적인 집중, 주도산업 돌출, 특색이 뚜렷한 농업 산업화 시범단지를 중점 지원하여 농산물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브랜드농업의 주요 기지 창조를 중시하여 농업산업화경영의 도약식, 일반을 초월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추진역할을 제공하였다.

□ 인재훈련과 R&D 강화, 용두기업의 발전능력 제고

- 성, 시, 구별로 농업산업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초청과 진출 방식을 결합하여 용두기업 책임자를 훈련시키고 외국전학과 관리인재팀건설을 중시하고 도입, 소화, 흡수와 혁신을 결합하여 용두기업의 기술개조와 기술 R&D 과제를 지원하였고 기업경영관리와 과학기술수준을 제고하였다.

4. 산동성 웨이팡시 및 수광시 관련 기업 등 현장 방문 결과

□ 수광시 농산물품질검사소

- 2001년 운영 시작. 2003년 인증 획득, 현 건물은 2005년 오픈
- 직원: 16명
- 주요업무
 - 농산물 품질 검사: 농약잔류 검사 등
 - 토양, 비료, 투입 품질 검사: 중금속 오염 검사
 - 상품생산환경 품질 검사: 3,000m²

□ 수광시 채소집단지범단지

- 호박: 100무 정도 식재
- 호박묘를 오이에 접목하여 묘생산
 -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수행
- 비닐하우스
 - 계량식 온실: 북쪽면을 시멘트로 벽을 세움
 - 자동온도조절장치도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음.
 - 계량식 온실 설치비는 개당 10만 위안
- 유리온실 단지
 - 정부 지원형 전문단지로 토마토 등 과채류 관련 묘목을 개량하고 생산하는 곳, 내수 및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수광시 농산품물류원

- 현 건물을 2005년 오픈
 - 네덜란드 물류센터보다 규모면에서 크다고 함.
- 부지 규모는 3,000 무 정도이며, 20억 위안 투자했음
- 채소가격을 결정하는 중심지 역할
- 결산은 카드로 이루어짐

□ 수광시싼위안주(三元朱)촌

- 2009년 촌주민 1인당 소득은 약 11,000 위안

- 촌장의 리더쉽이 뛰어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음
- 쑤위안주촌(三元朱村)은 동난식(冬暖式) 온실의 발상지로 중국 특유의 경제촌이다. 이 마을은 서우광(壽光)시의 남단에 위치하며 교통이 편리하고 농업이 발달하였다.
 - 5천 여 년 전, 룡산문화(龍山文化: 중국 黃河 중 하류 지역의 신석기시대 말기 문화의 한 종류로 최초 산둥 리청(歷城) 龍山鎮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룡산문화라 불림)와 다원커우문화(大汶口文化: 신석기 시대 후기 부계사회의 전형적인 문화형태로 산둥성 타이안(泰安) 부근의 다원커우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명명됨)의 감화를 받아 농성(農聖) 자쓰세(賈思勰: 기원 386년~543년)가 농학연구를 통해 중국 역사상 최고의 농학 저작 “제민요술(齊民要術)”을 써낸 지방으로 중앙정치국 위원이면서 신장자치구 당서기인 왕러취안(王樂泉)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도 하다.
- 쑤위안주촌에는 전체 216 가구, 86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295무이고 채소온실 530동, 과수원 310무가 있다.
- 1989년 쑤위안주촌 17명의 당원 간부는 왕러이(王樂義)의 지도하에 “동난식 채소온실”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였으며 그 한해 온실 1동의 평균수입이 27000위안에 달했다. 이로써 절반 중국을 개변시키는 농산업구조 “녹색혁명”을 가져왔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농촌의 경제발전을 추진하였고 수익에 달하는 중국 농민에게 새로운 과학기술로 치부하는 길을 찾아주었다.
- 쑤위안주촌은 동난식 채소온실의 채소 재배 기술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후 그 기술을 전국의 농민들에게 보급해주었고 전국의 26개 성(시, 자치구)에 전수하였다.
 - 줄곧 외지에서 기술을 보급하는 인원이 백여 명을 넘는다. 쑤위안주촌은 수많은 농민들로 하여금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 현대농업을 발전시키고 새농민을 양성하기 위해 쑤위안주촌에서는 하이테크 과학기술농업시범기지과 국제농업과학기술연수센터를 설립하여 2008년 말까지 참관, 고찰, 연수를 수행한 인원이 100 만 명에 달한다.
 - 실험과 개선을 통하여 5대 동난식온실 기술을 보급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관

개(滴灌)기술, 마이크로 컴퓨터관리시스템, 무토양 재배, 생물학적 방제 등 20여개의 기술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고 20개 부류의 300여개 작물 신제품을 보급하였다.

-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외 많은 유명 농업과학연구기관, 전문학교 및 농업전문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표준화 생산기술을 보급하였으며 고품질의 녹색채소를 생산했다. ” 라이(樂義)” 채소 브랜드는 산둥성 유명상표로 인정을 받았고 ” 라이 “표 오이는 전국 명품 농산품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라이화공회사가 생산한 채소용 비료는 전국에서 검사면제 인정을 받았고 녹색농업의 안심제품으로 발전하였다.